

Arts Friend

 -Arts, Your Arts!
ULSAN

6
2020
Vol. 235

알프레드 시슬레,
〈Morning, along the Wood, in the Month of June〉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Events

울산시립교향악단 04
2020 디스커버리 시리즈
클래식 할 뻔(FUN)

Special Performance

기획공연 06
크로스오버뮤직페스타

기획공연 08
베리어프리영화제

기획공연 11
어나도아트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20년 6월호 통권 235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남구 변영로 200(달동)

발행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기획·편집 홍보마케팅팀 T.052) 226-8241 ~ 2

디자인·제작 시냇가에심은나무

Arts & Story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5 관악산 자하동에서 공부한 시서화-삼절 자하 신위	12
커뮤니티 아트 4 문화민주주의를 꿈꾸다 (II)	18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4 전쟁의 상처가 크고 깊은 만큼, 소리도 크고 깊은 것일까?	22
뮤지컬 '위키드' 잘 아는 이야기는 뒤집어 보는 매력	26
미학의 눈_작품해석과 감상 4 그녀의 허밍, 말해주세요	31



Information

6월 공연·전시가이드	36
공연일정	38
전시일정	40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42
유료회원 특별혜택	43
회원가입안내	44
협약점 이용방법	45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46
생활 속 거리두기	47



클래식 할 뻔 ①

CLASSIC FUN

울산시립교향악단
2020 디스커버리 시리즈



매회 전석 매진 !!
유쾌하고, 재미있고, 참신하다
클래식의 발자취를 따라서~

“서희태 지휘자 그가 말하는 클래식에 대한 모든 것”

클래식??? 클래식 같지 않은데...클래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기획되어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장수 기획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할 뻔(FUN)이 2020년에는 나라별 클래식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세계음악기행 첫 번째 시간으로 영국과 미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 ‘헨델’, ‘윌리엄스’, ‘번스타인’, ‘브리튼’의 걸작품을 서희태 지휘자의 재미있고 위트 넘치는 해설과 지휘로 객석에 웃음과 감동을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베토벤 바이러스의 마에스트로’ 서희태와 함께하는 특별한 콘서트!!

클래식 음악의 세계 여행을 다 같이 떠나 볼까요?

Program	Profile
Edward Elgar /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Op.39 No.1 에드워드 엘가 / 위풍당당 행진곡 작품 39 중 제1번	 지휘/해설 서희태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빈 시립콘서바토리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 오페라과 최우수 졸업 - 러시아 그네신음악원 성악, 오케스트라 지휘과 박사과정 수료 - 이태리 도니제티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오페라 지휘과 졸업 - 2009 '김연아 아이스쇼' 지휘자 & 2011 세계피겨선수권 대회 오마주 투 코리아 음악지휘 - MBC 미니시리즈 '베토벤 바이러스' 예술 감독 - tvN '오페라스타' 시즌1, 2 심사위원장 - SBS 스타킹 '기적의 목청강' 멘토 단장 - TBS 교통신방송 '주말의 클래식' 및 CGNTV "클래식 갤러리" 전24회 고정출연
Georg Friedrich Handel / Suite 'Water Music' (Arr. by Hamilton Harty)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 / 수상음악 모음곡 (해밀턴 하티 편곡)	
Ralph Vaughan Williams / English Folk Song Suite 랄프 본 윌리엄스 / 영국 민요 모음곡	
Leonard Bernstein / Candide Overture 레너드 번스타인 / 캔디드 서곡	
Benjamin Britten / 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Op.34 벤자민 브리튼 /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해설/박인경)	



세계음악 기행 I

클래식의
과거, 현재, 미래
영국 & 미국편

지휘/해설 서희태



6. 12. Fri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원

회원30%, 단체10인이상 20%, 학생(초,중,고) 및
청소년증 소지자 50% 할인 공연문의 (052)275-9623~8

420석 한정으로 예매를 받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클래식 할 번 ①

**CLASSIC
FUN**

울산시립교향악단
2020 디스커버리 시리즈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프로젝트

2020 울산 크로스오버 뮤직페스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2020 울산크로스오버뮤직페스타」가 펼쳐진다.

코로나19로 많은 공연이 취소 또는 잠정 연기됨에 따라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지역인들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크로스오버(crossover)'란 장르가 서로 다른 음악의 형식을 혼합하여 만든 공연을 뜻한다. 「2020울산크로스오버뮤직페스타」에서는 중창단이 부르는 영화 주제가, 금관앙상블이 연주하는 트로트 음악, 국악비트의 비보잉 댄스 등 새롭고 다채로운 공연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세 가지의 테마로 진행되어, 관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첫 번째 무대인 26일(금) 저녁에는 <클래식으로 듣는 OST>라는 테마로, 울산의 젊은 뮤지션들로 구성된 '아우름 앙상블'과 '드림아트 앙상블', 울산을 대표하는 성악가 '김대영'과 피아니스트 '윤철희' 그리고 팬텀싱어의 팝페라 듀오 '듀에토'의 공연이 펼쳐진다.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영화음악에 클래식을 접목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27일(토) 낮에는 신나고 흥겨운 초여름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야단법석(野壇法席)> 테마, 저녁에는 <감성과 치유(Feeling & Healing)> 테마로 아름다운 선율의 여운이 짙은 공연을 선사한다. <야단법석(野壇法席)> 테마는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퓨전밴드 'B9밴드', 비보잉그룹 '카이크루', 흥겨운 재즈그룹 '진수영 앙상블', 금관밴드 '더브라스' 그리고 세계적인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가 흥겹고 화려한 무대를 장식한다.

마지막 무대인 <감성과 치유(Feeling & Healing)>에서는 하모니 아카펠라 그룹 '노래숲', 전통음악 국악연주단 '민들레', 개성 넘치는 5인조 재즈밴드 '황태룡 쿼텟', 감미로운 어쿠스틱 음악을 선보일 '김천 오카리나 프로젝트' 그리고 '내드름연희단'과 '대보름밴드'의 동서양을 아우를 독창적인 콜라보 무대로 구성되어, 여름밤을 감성적인 멜로디를 음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기획된 이 공연에서는 울산을 대표하는 지역 예술단체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내고 있는 여러 예술인들이 함께 한다.

세 가지 테마의 풍요로운 무대로 초여름을 뜨겁게 달굴 「2020 울산크로스오버뮤직페스타」는 총 3회에 걸쳐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객석 띄워앉기, 타인과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INFORMATION

공연일자	6. 26.(금) 19:30~21:30 클래식으로 듣는 OST
	6. 27.(토) 15:00~17:00 야단법석(野壇法席) 19:30~21:30 감성과 치유(Feeling & Healing)
공연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관람료	무료
문의	052)226-8284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프로젝트



"힘내자-울산!"

2020 울산

크로스오버

뮤직페스타

Crossover Music Festa

2020. 6. 26.(금) ~ 27.(토)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6. 26.(금) 19:30~21:30 클래식으로 듣는 OST

6. 27.(토) 15:00~17:00 야단법석(野壇法席)

19:30~21:30 감성과 치유(Feeling & Healing)

코로나19 방역지침 마스크착용, 객석띄워앉기, 타인과 1미터이상 거리두기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in 울산



배리어프리영화란?

배리어프리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을 넣어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말한다. 또한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을 통해 다문화 가족, 노인 및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이다.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2011년 배리어프리영화 심포지엄으로 문을 연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는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함께 즐기는 영화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해마다 11월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고 있다.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는 최신 배리어프리영화를 한 자리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리어프리영화 관련 포럼 및 관련 부대행사들을 통해 배리어프리영화의 대중화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영화제로 자리매김 해 오고 있다.

INFORMATION

행 사 명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in 울산
상영일정 2020. 6. 19(금)~6. 21.(일) 14:00
상영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전석무료
주 최 울산광역시
주 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문 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https://ucac.ulsan.go.kr>



감쪽같은 그녀

A Little Princess, 2019

일시/장소 : 2020. 6. 19.(금) 14:00 / 소공연장

info. 2019/ 한국/ 드라마/ 104분/ 전체관람가/ 감독 허인무/ 출연 나문희, 김수안
배리어프리버전 연출 허인무/ 화면해설 이종혁

줄거리

“초면에 실례하겠습니다~”

72살 나 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말순 할머니의 인생에 돈도 보도 못한 손녀(?)가 나타났다!
특기는 자수, 용돈 벌이는 그림 맞추기(?) 동네를 주름 잡으며 나 혼자 잘 살고 있던 말순 할머니
앞에 다짜고짜 자신을 손녀라고 소개하는 열두 살 공주가 갓난 동생 전주까지 업고 찾아온다.
외모, 성격, 취향까지 모든 것이 극과 극인 말순과 공주는 티격태격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지내지만, 필요한 순간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다.
하지만 말순은 시간이 갈수록 공주와의 동거생활이 아득하고 감쪽같은데...

관객과의 대화



허인무 감독

2007년 영화 <허브> 감독, 각본
2007년 영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감독
2011년 영화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 각본, 감독
2014년 영화 <웨딩 다이아몬드> 감독
2019년 영화 <감쪽같은 그녀> 감독, 각본



마당을 나온 암탉

Leafle, A Hen into the Wild, 2011

일시/장소 : 2020. 6. 20.(토) 14:00 / 소공연장

info. 2011/ 한국/ 애니메이션/ 93분/ 전체관람가/ 감독 오성윤/
목소리 출연 문소리, 유승호, 최민식, 박철민
배리어프리버전 연출 오성윤/ 화면해설 전숙경(성우)

줄거리

양계장을 탈출한 겁 없는 암탉과 철부지 청둥오리의 기막힌 만남!

매일 알만 낳던 운명의 암탉 잎새는 양계장을 탈출해, 나그네와 닭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만끽
한다. 어느날, 주인 없이 버려진 뽀얀 오리알을 발견한 잎새는 난생 처음 알을 품게 되고...
드디어 알에서 깨어난 아기 오리 초록은 잎새를 '엄마'로 여긴다. 족제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높으로 여정을 떠나는 암탉 잎새와 청둥오리 초록. 과연 이들은 험난한 대자연 속에서 더 자유
롭고 더 높이 날고 싶은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관객과의 대화



오성윤 애니메이션 감독

극장용장편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1996)을 기획, 제작
<마당을 나온 암탉>(2011) 감독
여러 배리어프리 버전의 연출
극장용장편 애니메이션 <언더독>을 제작



일 포스티노

Il postino, The Postman, 1994

일시/장소 : 2020. 6. 21.(일) 14:00 / 소공연장

info. 1994/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드라마, 멜로, 로맨스/ 114분/
15세이상관람가/ 감독 마이클 래드포드/ 출연 필립 노와레, 마시모 트로이시
배리어프리버전 연출 신연식/ 화면해설 김슬기

줄거리

우정과 사랑, 성장을 담은 한 폭의 시 <시가 내게로 왔다>

작은 섬 칼라 디소토에 오게 된 시인 네루다,
어부의 아들 마리오는 그의 도착으로 인해 불어날 우편물량을 소화하고자 우체부로 고용된다.
로맨틱 시인 네루다와 가까이 지내면서 섬마을 여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던 마리오는 그와
우정을 쌓아가면서 시와 은유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아름답지만 다가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베아트릭제 루소와 사랑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자라고 있던 뜨거운 이성과 감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관객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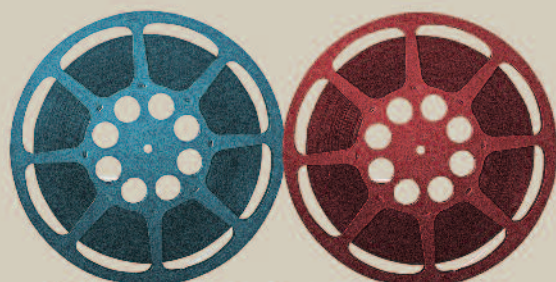
이진화 성우

2012~현재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한국어더빙 프로듀서
2016 영화 <나의 아저씨> 미야미즈 히토미 한국어 목소리 출연
2010 영화 <토이 스토리 3> 포테이트 헤드 부인 한국어 목소리 출연
TV 영화 <찰리 제이드> <블루문 특급> <여글리 베티>
<스필버그의 여메이징 스토리> 등 한국어 목소리 출연
TV 애니메이션 <개구쟁이 스타즈> <달려라 하니> <드래곤볼 Z>
<이겨라승리호> <작은 아씨들> 등 한국어 목소리 출연
1977 TBC 입사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in 울산

2020. 6. 19.(금) / 20.(토) / 21.(일) 14: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스크착용, 객석띄워앉기, 타인과 1미터이상 거리두기

2020 / 06 / 27

07 / 25

11AM-5PM

09 / 26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10 / 24

행사내용 [어 : 나도 아트]

아트 프리마켓 · 버스킹
공예체험 · 드럼서클

코로나19 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공연장 객석 띄워앉기
- 타인과 1미터이상 거리두기

ANOTHER ARTS

[어 : 나도 아트 프리마켓]



신위, <방대도>

종이에 수묵, 17×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5

이인숙

『석재 서병오 필묵에 정을 담다』 저자

관악산 자하동에서 공부한 시서화 삼절 자하 신위

노을이 아름다운 자하동과 자하 신위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려 시서화 삼절로 꼽히는 인물이 조선시대에 여럿 있지만 그 중 자하(紫霞) 신위(1769-1847)를 첫 손가락에 꼽는 의견이 있다. 세 가지가 다 뛰어나도 방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문인예술의 으뜸인 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단연 신위가 삼절 예술가 중 첫째라는 것이다. 신위는 자신의 시를 지은 곳에 따라 나누고 연대순으로 정리한 시모음집 형태로 구성된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를 직접 편집했는데 무려 4,069수이다. 16세 이전의 시는 모두 불태웠고, 16-40세 때의 시 494수는 『분여록(焚餘錄)』으로 따로 전한다. 근대 전환기의 문인 창강(滄江) 김택영(1850-1927)은 그 중 932수를 선별한 『신자하시집』을 1907년 중국 남통(南通)에서 간행하며 서문에서 신위를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꼽았다. 신위의 시는 강위, 황현, 이견창, 김택영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림에 있어서 신위는 묵죽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산수화도 상당히 남겼다. 자작시를 화제로 써 넣어 그의 시서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작품인 <방대도(訪戴圖)>는 시서화가 결합된 문인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는 이렇다.

일각옹빙풍노호(日脚凝氷風怒呼)
 햇살은 얼어붙고 바람은 성난 듯 부르짖는데
 루음산대합모호(樓陰山黛合模糊)
 누각은 어둡고 산은 검어 모두 흐릿하네
 몽회주기전소석(夢回酒氣全消席)
 꿈에서 돌아오니 술기운 깨끗이 사라진 자리에
 인정향연상재로(人靜香煙尙在罏)
 인적은 고요한데 향 연기는 술항아리에 여전하네
 일점사비용난연(一點斜飛融暝靄)
 한 점 눈발 날아들어 벼루에 떨어져 녹고
 건성취지변한노(乾聲驟至變寒蘆)
 마른 소리 갑자기 모여들어 차가운 갈대를 움직이네
 우연수묵참황미(偶然水墨參黃米)
 우연히 수묵으로 황공망과 미불을 참조하니
 맥지신유방대도(驀地神遊訪戴圖)
 돌연히 정신이 노닌 곳은 대규를 찾아가는 그림이네

초설주후(初雪酒後) 자제(自題) 황불황미불미법(黃不黃米不米法)
 첫눈 내린 날 술 마신 후 스스로 화제를 쓰다. 황공망이면서 황공망이 아니고, 미불이면서 미불이 아닌 화법이다.

대규를 방문하는 그림인 ‘방대도’는 중국의 4세기 때 사람인 왕휘지가 어느 날 내린 밤 친구 대규를 찾아간 일화로 ‘설중방우(雪中訪友)’, ‘설야방대(雪夜訪戴)’ 등의 제목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즐겨 그려졌다. 위진남북조시대 명사들의 별난 언행을 기록한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온다. 왕휘지는 중국의 서성(書聖) 왕희지의 다섯째 아들로 역시 유명한 서예가인데 어느 날 밤중에 깨어보니 큰 눈이 내려 사방이 온통 하얗게 바뀌어 있었다. 술 한 잔에 시 한 수 노래 하노라니 문득 대규가 보고 싶었다. 왕휘지는 소흥(紹興)에 대규는 소주(紹州)에 살고 있었다. 곧 배를 타고 찾아갔으나 왕휘지는 대규의 집 문 앞에서 그냥 돌아왔다. 사람들이 밤중에 그 먼 길을 가서 왜 만나지 않고 왔느냐고 묻자 “흥이 일어나서 갔고, 흥이 다해 돌아왔을 뿐이다. 꼭 대규를 만나야 하나?”라고 대답했다.

마음이 가는데 따라 행위의 과정을 향유할 뿐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구애받지 않았던 왕휘지의 천진한 흥취와 초탈한 태도를 보여주는 이 에피소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 고사도(故事圖)의 한 주제가 되었다.

<방대도>는 앞 쪽의 숲과 마을 강기슭에 배 한척을, 강 건너에 또한 마을을 대강 그렸을 뿐 인물도 없고 설경으로 보이지도 않아 화제가 아니라면 이런 내용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 묘사의 디테일이나 설명적인 필치 없이 붓과 먹의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사용한 스스럼없는 필묵의 경지를 보여준다. 이 화제시는 『경수당전고』에 1837년(69세) 작품으로 실려 있어 이 그림 또한 70세를 전후한 신위 만년의 필치임을 알 수 있다. 방작(倣作)하며 배웠던 황공망과 미불을 언급했지만 황공망의 피마준도 미불의 미점법도 아닌 신위 자신의 화법일 뿐이다.

눈이 내리면, 특히 첫눈이 내릴 때면 누군가 생각나는 것은 고금에 같았던가 보다. 서명은 없고 호를 새긴 주문방인 <자하> 한 방만 찍었다. ‘자춧빛 노을’이라는 자하는 신선이 살 것 같은 수석(水石)의 경치가 좋은 선경(仙境)을 상징해 자하산, 자하봉, 자하동, 자동, 자하문 등으로 지명에 보인다. 고려 때는 개성 송악산 자하동이,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관악산 자하동이
유명했다.

신위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관악산 자락인 경기도

시흥군 자하동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 여기에서

호를 따왔다. 『임원경제지·

상택지』에 자하동은 “과천 관악산

안에 있다. 관악산 남북이 모두 살만한데

남쪽 자하동이 더욱 좋다”라고 나온다. 남자하동은

지금 과천향교 인근의 골짜기이고 북자하동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으로 통하는 신림천 계곡이다. 서울대 교내에

신위를 기념해 자하연(紫霞淵)으로 이름 붙인 연못이 있고 못가에

신위의 시비와 작은 인물상이 있다. 신위는 한양에 살며 여러 지방

에서 벼슬살이를 했지만 이곳을 늘 그리워했다. 1830년 62세 때

탄핵을 받아 강화유수를 사임하고 자하산장(紫霞山莊)으로 돌아

오기도 했으나 다시 벼슬길에 나가 진퇴를 거듭하다 79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신위의 호는 그림과 글씨에서 보이는 자하가 가장 유명하지만

자신의 문집에는 잘 쓰지 않던 호인 ‘경수당(警修堂)’을 붙였다.

1820년 52세 때 신위는 청나라 옹방강이 쓴 자신의 호 ‘경수당’과

‘청풍오백간(淸風五百間)’ 글씨를 받았는데, 이 중 <경수당> 편액이

과천 추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경수당’을 나무판에 새기기 위해

직접 쌍구로 옮겼다고 했지만 ‘경수’의 뜻에 대해서는 설명해 놓지

않았다. 신위는 시를 마치 일기처럼 써서 그의 신변이나 관련되는

사실을 시나 시의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경수당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언급한 것을 찾기 어려운 것은 의문이다.

나이 든 자하, 노하

신위는 탄은 이정, 수운 유덕장과 함께 조선3대 묵죽화가로 꼽힌다.

신위는 어려서부터 시서화에 재능을 보였는데 월암(月巖) 이광려

(1720-1783)에게 시를 배웠고, 표암(豹菴) 강세황(1713-1791)에게

그림을 배웠다. 강세황 또한 시서화를 다 잘 한 삼절의 문인예술가

이다. 조선 후기 삼절 중에서 그림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강세황이

첫째로 꼽힐 듯하다. 강세황은 자신의 그림과 글씨를 자부하며



신위, <고목죽석>
종이에 수묵, 19.5×48cm
개인 소장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그렸고, 서화의 안목이 높아 많은 감상평을
남기며 평론가로서의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해 ‘예원의 총수’라는
호칭이 붙여졌다.

신위는 “어린 시절 나는 강 표암을 본떠 배워 수제자라는 그릇된
추앙도 받아 보았네.”라고하며 은근히 강세황의 수제자임을 자부

했는데 다만 죽석 한 가지만 배웠던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 신위의

묵죽은 강세황의 성글고 묶은 맛을 계승해 대나무의 강인함보다는

격조와 우아함이 특징이다. 강세황도 그렇듯이 화보의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청나라의 새로운 묵죽 화풍을 흡수한 장축(長軸)의

대작도 남겼다. 신위의 묵죽은 붓의 사용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먹색의 농담 변화도 급격하지 않아 그의 글씨와 분위기가 비슷

하다. <고목죽석(枯木竹石)>은 가는 죽간과 유연한 죽엽의 묵죽법,

바위와 지면의 표현에 담묵의 윤곽선을 활용하고 농묵의 태점을

성글게 찍은 그의 우아한 필묵 표현이 잘 드러난다.

신위의 묵죽화는 중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당시의 권세가를

비롯해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다. 신위가 승정원에 근무할 때 한번은

여러 사람에게 대나무그림을 그려주었는데, 하급 서리 한명이 감히

부탁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내가 어찌 너에게만 인색

하게 굴 것이냐”라고 하며 그에게도 그려주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신위의 소탈한 사람됨을 보여주는 일화는 또 있다. 어느 해 설날

세배 온 화가 석당(石塘) 이유신(李維新)이 신위의 책상 위 괴석(怪石)을

어루만지며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아끼던 이 돌을 이유신

에게 선물했다고 『이향견문록』에 나온다.

그림 인심이 좋았던 신위가 주변 사람들의 부탁으로 그렸을 부채에 그린 묵죽화가 여러 점 전하는데 <고목죽석>처럼 고목과 대나무, 바위를 함께 그린 것은 묵죽을 통해 문인화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 북송시대 동파 소식이었다. 신위는 화제에서 “동파만년(東坡晩年) 다작고목죽석(多作枯木竹石) 방기의(倣其意) 사지(寫之) 노하(老霞)”라고 소식의 뜻을 따라움을 밝혀 놓았다.

서명을 ‘나이든 자하’인 노하로 했다. 신위는 만년에 자하노인(紫霞老人), 하도인(霞道人)으로 서명하기도 했고 노하거사(老霞居士), 자하거사(紫霞居士)로 서명하기도 했다. 도인, 거사를 호에 붙여 쓴 것은 신위의 도가적, 불가적 성향을 보여준다. 자하, 경수당 외에도 신위의 호는 무척 많다. 북선원소낙엽두타(北禪院掃落葉頭陀), ‘북선원에서 낙엽 쓰는 수행자’라는 재미있는 호를 쓴 일도 있다. 『경수당전고』의 각 편명에도 그가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당호가 나온다. 명금채약지현(鳴琴采藥之軒), 청수부용각(淸水芙蓉閣), 시몽실(詩夢室), 무헌(櫺軒), 화도시옥(和陶詩屋) 등이다.

나도 담계 웅방강의 제자, 우일보담재

<방매도인(倣梅道人) 산수>는 신위의 드문 채색 산수화로 강을 사이에 둔한 일수양안(一水兩岸), 격수양안(隔水兩岸)의 화보풍 구도로 스승 강세황도 이런 화면 구성을 자주 활용했다. 1814년 46세 때 작품으로 화제는 이렇다.

막향거연문법장(莫向巨然問法藏)

화법을 묻기 위해 거연을 찾을 필요 없으니



신위, <방매도인 산수>
1814년(46세), 종이에 담채,
24.5×48.3cm, 개인 소장

도인묵기가침창(道人墨氣自沉蒼)

매도인의 먹 기운은 절로 깊고 무성하네

석간태초림간엽(石間苔草林間葉)

바위 사이 이끼와 풀, 숲의 나뭇잎

병작매화발발향(倣作梅花勃勃香)

매화와 함께 모두가 향기를 흠뻑 풍기는구나

갑술하일(甲戌夏日) 방(倣) 매도인법(梅道人法)

갑술년 여름날 매도인의 화법을 본받아 그리다.

매도인은 원4대가 중 한 명인 오진(1280-1354)으로 이 화제시는 『경수당전고』에 ‘방사제가산수(倣寫諸家山水) 자제절구(自題絕句)’로 실려 있는 8수 중 마지막 시이다. 신위가 여러 대가들의 산수화를 방작(倣作)하면서 자작시를 화제로 써 넣었던 그림 중 여덟 번째 작품이 <방매도인 산수>인 것이다. 이 8수에 해당하는 그림을 다 그렸을 것이지만 이 그림만 전하고 있다. 묵죽을 주로 그리다 40대 중반 무렵 산수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8수의 제목만 순서대로 보면 ‘황자구법(黃子久法)’, ‘동사백법(董思白法)’, ‘운남전(수평)법(惲南田(壽平)法)’, ‘추매암(지린)법(鄒昧菴(之麟)法)’, ‘왕연객(시민)법(王煙客(時敏)法)’, ‘우사옹법(又思翁法)’, ‘대치석전합법(大癡石田合法)’, ‘오중규법(吳仲圭法)’ 등이다. 원나라 황공망(2회)과 오진, 명나라 심주와 동기창(2회), 청나라 운수평, 추지린, 왕시민 등 중국 대가들의 산수화를 위주로 배웠음을 알 수 있다. 원명청의 대가들 중 작가수로는 청나라 초가 3명으로 가장 많지만 원나라 황공망과 명나라 동기창은 2번씩 나온다. 황공망의 산법(山法)과 심주의 임목법(林木法)을 한 작품에서 혼용하기도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정형화된 화보풍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낙관은 <신위지인(申緯之印)>이고 머리도장으로 주문

장방인 <우일보담재(又一寶覃齋)>을 찍었다. 보담

재는 추사 김정희가 1809-1810년 중국 사신단의 일행으로 갔던 연경(북경)에서 담계(覃溪) 웅방강과

사제의 인연을 맺고 돌아와 ‘담계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뜻으로 지어 사용한 호인데 신위는 자신이 ‘또 하나의 보담재’, 곧 웅방강의 제자라고 한 것이다. 신위는 1812년 7월 연경으로 가는

사신단의 서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때 친하게 지내던 후배 김정희는 전별시 10수를 지어주며 “중국에 가면 대단한 볼거리가 많겠지만 웅방강 한 분 뵈는 것만은 못할 것”이라며 웅방강을 꼭 만나보라고 했다. 신위는 웅방강을 찾아갔고 환대를 받으며 웅방강의 금석문, 글씨, 그림 등 소장품을 감상하며 안목을 크게 넓힐 수 있었다. 웅방강은 소동파 친필을 소장해 ‘소재(蘇齋)’로 당호를 쓰기도 했는데 소동파를 흠모했던 신위도 ‘소재’를 당호로 쓰기도 했다.

신위는 청나라 웅방강과 옹수곤 부자, 왕여한, 섭지선, 장심 등과 교류했고, 국내에서도 김정희, 정약용과 정학연 부자를 비롯해 한치응, 이학규, 김조순과 김유근 부자, 서영보, 정원용, 이유원, 심상규, 조인영, 윤제홍, 송상래, 이유신, 이상적, 초의선사, 죽향(竹香) 등 당색과 나이, 신분과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다.

나이 든 나무꾼, 자하노초

신위는 시인으로 가장 유명하고 묵죽으로 이름 높지만 서예가로 서도 전통파의 대가이다. 전각에도 일가견이 있어 현종(재위 1834-1849)의 명으로 왕실의 인장을 정리한 인보『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 제작을 맡기도 했다. 신위는 16세 때 송하(松下) 조유행의 딸과 혼인했는데 처가는 대단한 명필 집안이었다. 장인 조유행은 글씨로 정조의 총애를 받은 당대의 대가였고 처조부 조명교도 글씨로 유명하다. 신위는 장인 조유행에게 글씨를 배웠다. 조유행의 스승은 원교(圓嶠) 이광사이고 이광사는 백하(白下) 윤순의 제자이다.

윤순은 신위에게 처외조부가 된다. 그림 스승 강세황 또한 글씨를 잘 써 표암체로 일컬어졌고, 후배 김정희 또한 추사체의 대 서예가이다. 신위는 승정원에 김정희와 함께 일하던 때를 “말이 통하는 후배와 함께 가장 좋은 때를 보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신위는 백하체, 원교체, 송하체, 표암체, 추사체로 일컬어지는 조선 후기 대 서예가들의 글씨를 모두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조선 후기 삼절 예술가의 계보는 강세황 → 신위 → 김정희로 이어졌다.

17년 연하인 김정희가 청나라의 새로운 금석학, 고종학 학풍을 흡수해 고대 서체인 예서의 미감을 자신의 개성을 통해 재창조한 혁신을 이룬데 비해 신위는 송나라 소식과 미불, 명나라 동기창 등 전통적인 대가들의 고전적인 행서에 기반 해 자신의 서풍을 이루었다. 보통 조선시대 서예를 4기로 나눌 때 초기의 안평대군 이후,

중기의 석봉 한호, 후기의 윤순, 말기의 김정희를 4대가로 꼽는데 신위는 윤순의 서맥(書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윤순은 신라 김생 이후의 우리나라 서풍을 섭렵하고 왕희지체의 고전을 바탕으로 당, 송, 원, 명 대가들의 글씨를 깊이 공부해 소화함으로서 석봉체의 관각풍(館閣風)에서 벗어나 조선 후기의 새로운 시대 서풍을 꽃 피웠다.

당시에는 금석학이 유행하고 고대 비문의 전서, 예서를 학습 자료로 삼는 비학(碑學)이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신위는 기존의 첩학(帖學)에 더 비중을 두어 왕희지 <황정경>의 ‘담고허화(淡古虛和)’를 심미적 표준으로 삼아 송원명청 대가들의 장점을 절충하는 쪽이었다. 이러한 보수적 성향은 장인 조유행, 스승 강세황, 스승으로 삼은 웅방강 등의 영향과 아울러 신위의 예술정신이 시대의 흐름을 흡수하기보다 시대를 초월하는 보다 원론적인 쪽에 있었기 때문 일 것이다. 한국 서예사에서 왕희지를 기준으로 삼는 첩학 서풍의 계보가 윤순 → 이광사 → 조유행 → 강세황 → 신위로 이어진 것이다.

신위는 일찍이 정조에게 재능을 인정받았고 순조, 익종(효명세자), 현종 등 4대에 걸쳐 임금의 은우(恩遇)를 받아 궁궐의 편액이나 병풍 등을 여러 차례 썼다. 정조는 ‘재동(才童)’으로 소문난 명문가 출신인 신위를 11살 때인 1779년 궁중으로 불러 시와 글씨 재능을 직접 시험보고 칭찬한 일이 있다. 신위는 1830년 62세 때 정조의 손자인 효명세자의 예필(睿筆) ‘양연산방(養研山房)’을 하사받기도 했다. 1841년에는 현종의 명을 받고 ‘금서재(琴書齋)’ 편액을 써서 올렸는데 이 무렵 지은 시에서 정조를 ‘금서실(琴書室)’에서 사대(賜對)한 일을 회상하기도 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1765-1832)은 “오랜 벗 신위는 열 살 무렵에 이미 삼절에 이르러 고금에 맞설만한 이가 드무니 아마 하늘이 내린 재능인가보다. 신위의 시법(詩法)은 스스로 묘경을 이루어 압록강 동쪽에서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경지이며, 그림 또한 기묘하고 맑고 빼어나다. …… 서예 또한 그 의취가 지극하나 시와 그림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신이 갖춘 삼절의 우열을 논한 것일 뿐 그의 글씨를 다른 사람의 글씨와 비교해 본다면 역시 추종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요화(蓼花)>는 꽃잎, 꽃가지, 버드나무 가지, 영지, 나비 등을 붓으로 직접 그린 중국산 붉은 비단에 쓴 행서 작품이다. 필치가 활달하고



신위, <여뀌 꽃> 비단에 수묵, 67.9×148.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우아하면서도 획마다 자연스러운 변화가 흐르고 있어 신위가 도달한 원숙한 경지가 잘 드러난다. 먹이 날이간 부분이 조금 있지만 글씨 감상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 왕희지를 이상으로 하면서 송원명의 대가들을 절충한 신위의 문기(文氣) 있는 서풍은 당시의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이 작품은 신위가 1832년 64세 때 정원에 핀 기을꽃을 소재로 지은 14수 중 붉은 여뀌 꽃을 읊은 시 '홍료(紅蓼)'를 쓴 것이다. 신위는 여뀌 꽃을 좋아해 젊은 시절 홍전(荇田)으로 호를 쓰다 자하로 바꾸었다. 내용은 이렇다.

어기횡단원산청(漁磯橫斷遠山靑)
 님시터가 가로지른 먼 산은 푸르고
 충수홍화입소영(叢水紅花入小艇)
 무성한 물가의 붉은 여뀌 꽃은 작은 배에 들어오네
 냉반호풍잔월유(冷伴曉風殘月柳)
 냉기와 짝한 새벽바람, 새벽달과 버드나무
 담장비노욕부정(淡藏飛鷺浴鳧汀)
 얇게 잠긴 나는 해오라기, 모래톱에서 씻는 오리
 주인미과강호몽(主人未罷江湖夢)
 주인은 아직 강호의 꿈에서 깨지 않았는데
 방각여문어해성(舫閣如聞漁蟹腥)
 방각여문어해성(舫閣如聞漁蟹腥)

배의 누각에는 물고기와 게의 비린내 실려 오는 듯

정자염전소우혈(丁字簾前疎雨歇)

정(丁)자 주렴 앞에 떨어지던 성근 비 그치니

수지홍죽가중정(數枝紅簇可中庭)

몇 줄기 붉은 여뀌 꽃이 정원과 잘 어울리네

녹료화구구(錄蓼花舊句) 예전에 지은 여뀌 꽃 시를 쓰다.

자하노초(紫霞老樵)

서명을 '자하노초'라고 했는데 노초는 나이 든 나무꾼, 초부(樵夫)이다. 생계를 위해 밭을 갈거나, 고기를 낚거나, 땔 나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경부(耕夫), 어부, 초부라고 표현하는 관례가 있었다. 문인사대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출세나 명예를 닦으려는 사람들로 혼잡한 관료사회나 지식사회를 떠나 자연에 묻혀 순박한 촌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서울 남산 기슭에 있던 신위의 집 당호 벽로방(碧蘆坊)은 '푸른 갈대밭 가에 매어 둔 배'라는 뜻으로, '뗏목 방(舫)'자를 붙인 것은 강호에 떠다니며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집을 배에 비유한 것이다.

커뮤니티 아트 4

문화민주주의를
꿈꾸다 (II)

이강민

울산미술연구소'봄'대표/울산대겸임교수

지난 호에서 우리는 문화정책 이념으로서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문화민주화가 '모두를 위한 문화'를 추구하는 반면, 문화민주주의는 '모두에 의한 문화'를 추구한다. 이 두 가지 이념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 즉 문화민주화는 엘리트 계층의 문화(위대한 전통)를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정책인 반면, '모두에 의한 문화' 즉 문화민주주의는 누구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림 1)

한편, '모두에 의한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의 배경에는 오늘날 문화가 자원이 되는 '문화경제'(Cultunomics),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의 출현과 연관되어 있다. 문화경제는 영국 프로축구-EPL이나 뮤지컬·영화 산업과 같이 스포츠나 예술, 의료뿐 아니라 생활문화와 역사기록 등(통틀어서 문화)을 자원으로 삼아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이다. 오늘날 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관광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바로 문화경제/체험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한국은 2000년 이후 국내 관광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여 2011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국내관광의 경향도 과거 자연·풍경감상이나 유흥·오락보다 휴식·휴양과 같은 웰빙·체험형 관광활동이 월등히 높아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지역문화의 자립화와 자산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독특한 경험을 위한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의 기능과 획일화 된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만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나 삶의 방식과 같은 지역문화의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문화 생산의 담당자는 당연히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의 창조는 지역주민들의 '참여'(participation), 즉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에 의해 맡겨진 것이다. 이것이 문화민주주의, 즉 누구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의 배경이다.

부처님은
불교대학을 나오시지 않았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은 이처럼 지역문화가 강조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따라, 보통사람들의 문화적 표현과 활동을 권리로 규정한 것, 지역에서 일상적인 문화 참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 정책을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강조는 이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하게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우선, 문화와 예술을 구별하는 것이다. '문화'는 살면서 얻어지는 의식과 관행, 즉 삶의 방식과 굳어진 양식을 말한다. 반면에 예술은 사람들이 문화적 과정, 즉 세계와의 마주침 과정 속에서 얻어진 주관적 감정을 특정한 형식(물질 혹은 비물질적 형식)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은 과학이나

문화민주화 (democratization of culture)	문화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
모두를 위한 문화	모두에 의한 문화
접근권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	참여권 (문화예술에 대한 창조)
낙수효과 (trickle down)	분수효과 (trickle up)

그림1>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비교



그림2>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ARKO)의 전신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예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의사결정 구조의 독단성과 폐쇄성을 이유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출범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영문으로 'Arts Council Korea'라고 쓴다. 한국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불명료한 개념정으로 인해 '예술이라 쓰고, 문화예술이라 읽는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190410071000005>



그림3> 울주생활문화센터 전경.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국민 누구나 문화적 표현과 활동을 할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생활문화기반시설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 센터의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달리 자발적 주민모임에 대한 대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2019년 7월 현재까지 191개소가 선정, 123개소가 조성되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생활SOC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가진 생활문화에 대한 편협한 인식 때문으로 지적된다.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은 생활문화를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취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를 주민센터의 취미 교실이나 동호회 활동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지자체 편의대로 정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여 설립, 운영한다. 울산도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3개소가 있으나, 그 중에는 생활문화센터가 전업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 공간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



그림4> 스릴러의 고전인 된, 영화 <가스등>(Gaslight, 1944)의 포스터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연극 <가스등>(1938)에서 시작된 심리학 용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란 사람들이 만든 재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문화는 익숙함(규범)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헤게모니(hegemony, A. Gramscy)와 아비투스(habitus, P. Bourdieu)는 문화가 타인을 조정하는 기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https://t1.daumcdn.net/cfile/156C5A10B2BA2C312E>

의료, 교육과 같이 문화의 일부분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를 예술로 이해하고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예술’이라는 세계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에게 문화를 예술의 범위로 축소하게 만들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당사자는 국가였다. 해방 이후 문화에 대한 최초의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1972)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국가 정체성 즉, 민족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기반시설 건립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림 2) 문화예술회관은 이 법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이때 예술회관(art center)이라 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culture & art center)이라고 이름 지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보통사람들이 단지 관객의 역할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술은 천재의 전유물로 이해되어왔다. 여기에 우리는 문화와 예술의 개념을 통합해서 사용하다보니 문화에 대한 창조도 예술가의 업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화를 예술과 분리해보면, 부처님이 불교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화장실 문화나 한식 문화를 예술가나 혹은 한식전문가가 만들지는 않았다는 인식에 쉽게 도달한다. 이처럼 오늘날 전해지는 문화는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전해진 것보다 이름 없는 보통의 남녀가 오랜 생활 속에서 환경과의 공동으로 창조한 산출물들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위대한 전통 만을 말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을 조금 확대 하면, 예술 가치는 ‘아름다움’, 즉 ‘장식 가치’와 삶의 필요 충족을 위한 ‘사용 가치’가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 변화는 예술의 창조가 단지 예술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표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모두를 위한 문화’에서 ‘모두에 의한 문화’로

프랑스 ‘문화의집’ 건립 사례에서 보았듯이, ‘모두를 위한 문화’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념이다. 왜냐하면 우선 그것은 문화가 오랜 기간 동안 공동의 사람들이 생활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내는 공동체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문화는 각각 자신들의 문화와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문화는 나라와 민족, 혹은 지역과 계급계층, 인종과 성별(gender), 심지어 취향공동체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은 모든 나라의 언어가 같지 않다는 점이나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만의 언어(방언)가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차이 때문에 모두를 위한 하나의 문화는 불가능하다. 역설적으로 이 문화의 차이, 다양성 때문에 오늘날 창조의 원천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가 불가능한 이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화민주화에서 말하는 ‘문화’의 개념은 평등이 아니라 계층(階層, Hierarchy)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였던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 1822~1888)는 문화를 ‘사고하고 표현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때 문화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고 유지되는’ 고급문화를 의미한다. 문화민주화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최고의 문화를 보통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이해했다. 따라서 문화민주화는 고급문화를 다른 문화권이나 하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주입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천하게 여기게 만들고 자기 정체성을 감추게 만드는 반면, 주입된 문화를 숭상하고, 마치 ‘그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만든다. (그림 4)

문화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노르웨이 오슬로(Oslo)에서 열린 유럽 문화부장관회의에 보고된 자료, 『문화민주주의를 향하여』(Towards Cultural Democracy, 1976)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림 5) 여기서 유럽문화협력위원회 고문인 심슨(Simpson)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대중 매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과는 무관한 과거의 단순한 유물로서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노동자 계층이 자신의 문화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문화 정책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¹⁾

심슨의 이 말은, 1968년 기존질서에 반기를 든 ‘68혁명’을 거치며 탄생한 커뮤니티 아티스트와 유럽문화협력위원회 자문위원 및

일부 문화행정가들이 함께 공유한 꿈이었다. 이 보다 앞선 1972년에 문화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유엔사무국 임시보고서(Larger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1972)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보고서는 이미 고급예술에 대한 '가격 인하와 무료 정책과 같은 일방적 공급이 오히려 문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한 오거 스탕 지라르(Augustin Girard)가 기초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보통사람들의 예술 참여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커뮤니티 아트'의 영향에 의해 문화정책이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교체되는 과정에 있었음을 보여준다.²⁾

문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오월동주(吳越同舟)

그런데 문제는 '모두를 위한 문화'가 여전히 문화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문화'는 우리에게 애매한 의미전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이라는 용어는 수혜적 측면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민주적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 결정'이라는 권리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즉 '모두를 위한 문화'라는 표어는 여전히 예술가·공급자와 시민·관람자라는 문화민주화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에서 문화민주주의 정책 진전에 발목을 잡는다.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의 5년간 평가에서,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비율은 80% 이상으로 높아진 반면, 문화예술 참여비율은 고작 10.2%에 불과했다. 이는 여전히 대다수의 문화행정가와 문화기획자들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을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사적 취미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협한 이해는 국민 창의성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을 단지 동호회나 주민 센터 문화강좌로 오해하는 등 왜곡된 정책 수행결과를 빚었다.

1) Simpson, J. A. 1976, Towards Cultural Democracy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p. 35-36.

2) 이처럼 유엔 및 국제기구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대중의 참여와 광범위한 문화의 사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국제개발협력과 지역사회 개발에서 개발 담론의 새로운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림5)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의 공식 로고. 1976년, 유럽위원회 문화부장관회의에서 문화민주주의가 공식 의제로 제출되었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_%ED%8F%89%EC%9D%98%ED%9A%8C#/media/%ED%8C%8C%EC%9D%BC:Flag_of_the_Council_of_Europe.svg

따라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문화'가 문화다양성과 참여라는 전제 속에서만 작동하는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문화다양성과 참여가 배제된 채, '모두를 위한 문화'를 내세우는 것은 단지 엘리트 중심의 문화와 예술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낡은 정책을 은폐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책은 일제가 그랬듯이, 문화를 '동이에 의한 지배'(hegemony)의 수단으로 삼는 교묘한 통치술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행정가나 기획자는 '문화민주화'라 쓰고 '문화민주주의'라고 읽거나 '문화민주주의'라 읽고 '문화민주화'를 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모든 시민은 자신의 문화적 표현과 활동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오(吳)와 월(越)이 어쩔 수 없이 한배를 탔다고 해서 대립관계가 사라지지 않듯이, 지금은 문화가 국가경쟁력과 지역 발전의 자원이 되는 시대에, 지배적인 문화 개념과 민주주의가 '참여'라는 한배를 타게 되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4

박지운
오페라 지휘자 / 오페라 작곡가

전쟁의 상처가 크고 깊은 만큼, 소리도 크고 깊은 것일까?

‘세르비아’

이탈리아반도 왼쪽 옆 발칸반도에 1930년대부터 ‘남 슬라브인 들의 땅’이란 의미의 ‘유고슬라비아’란 통일 공산국가를 세우고 사실 세르비아가 그 종주국이 되어 종족과 종교와 전부 다른 여러 민족을 끌어들인 지라 이 체제가 와해된 1990년 이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세르비아가 있었다.

북쪽 가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와의 5년간의 전쟁, 남쪽 이슬람을 믿는 알바니아와의 전쟁, 그리고 자기 땅에 속하지만 알바니아인들이 더 많이 살고있어 늘 알바니아로 편입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코소보’ 지역에서의 내전이 있었다.

미국과 유럽인들의 시각만을 받아 베껴 쓰던 당시의 우리나라 언론들에 의해 ‘밀로셰비치의 인종 학살’이란 표현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이 전쟁에는 특히 유럽연합군과 미국까지 참전하여 밤마다 세르비아의 주요도시들을 폭격함으로써 세르비아 인들은 늘 공습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필자는 2월 29일자로 귀국하여
지금 재택근무에 열중한 중에
쓰는 글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지 20여년, 세르비아는 평균 신장이 네덜란드 다음으로 크고 체격도 좋아서 미국 다음으로 농구 잘하는 나라, 또한 축구도 잘하는 나라,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츠' 정도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오페라 분야에서는 옆 나라들, 즉 루마니아의 소프라노 '코트루바스, 게오르규', 불가리아의 전설적인 소프라노 '디미트로바', 베이스 '가우로프' 같은 훌륭한 가수들을 많이 배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곳 수도 베오그라드는 유럽의 전통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작지만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오페라극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필자의 연주 전날, 베오그라드 극장에서 우연히 감상한 푸치니의 '마농 레스코'는 정말로, 정말로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은 명 공연이었다.

이날 공연을 맡은 이탈리아 지휘자는 필자가 만나본 여러 지휘자 중에서 가장 '마농 레스코'를 잘 이해하는 예술가였고, 그를 따르는 오케스트라의 수준 또한 아주 훌륭했다.

(뜻밖에도 2017년도, 이탈리아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필자의 작품 '선덕여왕'을 지휘할 때 만난 단원들이 여럿 앉아있는걸 보고, 이탈리아 사정이 옛날 같지 않아서 동구권 연주자들을 많이 데려온다더니만 그 당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일부는 세르비아 연주자들 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곳 베오그라드 오케스트라도 현과 목관 파트 소리도 물론이지만 특히 금관파트의 소리는 무지막지하게 크고 강렬하였다.

합창단, 무용수들 연기자들도 한명 한명이 (특히 키가 크고 체형과 비주얼이 뛰어나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자기 역할에 완전히 몰입되어 관객들의 시선과 신경을 강탈해 가고 있었다.

한편 그렇게 크지 않은 무대였는데 어찌 이 대작을 이리 정교하고도 액티브하게, 또 빈틈없이 연출할 수 있는지...

또한 무대장치나 조명이 서유럽의 대형 유명극장들에 비해 당연히 화려하지 않지만 필요한 아름다움과 미학이 곳곳에 숨어있고 포진되어 있었다.

아, 그리고 옆 나라인 불가리아나 또한 세르비아를 오랫동안 지배한 터키 (불가리아, 터키, 이 두 나라는 역도나 투포환, 레슬링 등 힘쓰는 운동에서는 항상 선두권이다)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곳의 결속한 요구르트가 장을 잘 비워주는 바람에 몸 안에 있는 여러 공명공간들이 잘 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수들의 소리가 한결같이 세고도 컸다.

(그 대신 이탈리아 발음들은 아직 많이 교정해야겠더라.)

왜 요구르트에 대해 언급했다면 필자가 떠나올 당시의 빡빡한 일정과 또한 국내에서 흥흥한 소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와중에 장시간 비행기를 갈아타고 와서 그런지 몸이 번비로 며칠째 잠겨있었는데 이 걸쭉한 요구르트를 먹고 몇 시간 후에 바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마농 레스코 공연 다음날 베오그라드 극장에서 멀지 않은 '콜라라츠 레도우먼트' 콘서트 홀에서 열렸다.

이날 필자가 지휘를 한 '파스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르비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대다수의 단원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루어진 젊은 오케스트라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고 전쟁이 끝난 직후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여 전문연주자가 된 젊은이들이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참으로 강렬하였다.

이들은 타고난 힘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슬라브적인 어두운 감수성애다가, 바다만 건너면 이탈리아가 있어 그런지 라틴적인 멜랑콜리의 세심함을 어느 정도 섞어 놓은 것 같았다.

한마디로 클래식음악을 하기에 적합한 지정학적, 신체적 요소를 다 갖추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같이 연주한 두 명의 소프라노 (산야 케르케즈, 소프라노 마리아 젤리츠)와 베이스 이반 토마세프에 대한 인상도 마찬가지이다.

한결같이 세고 힘차고 건강한 소리를 가졌다 (섬세한 기교와 감정표현은 발음의 문제만 좀 더 해결되면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여겨진다)

지난 몇 년 동안 연주여행을 다녀본 러시아, 체코,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세르비아.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 정도로 (필자의 느낌) 다가오는 베오그라드의 중심가는 소박하였고, 물가는 서울의 1/2 정도인 것 같고, 사람들은 이탈리아, 스페인사람들처럼 따뜻하면서도 호들갑스럽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네덜란드나 북독일, 러시아 같이 무뚝뚝하거나 차갑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자존심? 자궁심? ..

아무튼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종주국으로서 발칸반도를 리더해왔던 60여 년간의 세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십 수 년간의 크고 작은 전쟁을 견뎌온 그 기상이 우리나라 30년 전의 매연을

뚫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저들의 표정에서 자존심과 엄숙함과 자신감과 자긍심으로 필자에게
읽혀지며 필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음이 매우 흔쾌하였다.

뉴스에서는 간간히 코로나바이러스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았으나 필자가 머물렀던 5일 동안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페라 극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다.

(이 글을 쓰는 3월 10일 자에 드디어 발칸반도 불가리아에도 4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발표하며
옆나라 세르비아를 긴장시키고 있긴하다.)

‘AI, 4차 산업’ 등으로 대변되며 세계의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저들에 비해
훨씬 발달된 의료기술과 정비된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 또한 의심과 불신으로 휘청되고 있으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항상 종교와 예술을 포함한 사상이 앞장서서 사회를 치료하고 상처를 보듬어
왔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멸절되거나, 퇴보되거나, 멈춰있지않고, 이렇게 늘 앞으로 나아
오지 않았던가?

예술인들이여,

오페라 ‘라 보엠’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불을 뿜 장작 한 토막도 없으면서도 ‘쇼나르’가 구해온
몇푼 동전이 땡그랑 바닥에 떨어지자 그 동전 앞면에 새겨진 왕의 얼굴을 짓이키며 “Luigi Fil-
ippo II 가 우리의 발밑에 있다” 고 호기롭게 외치는 처절하게 가난한 젊은이들의 기상, 그 자존심
으로 무장하고 이 고통과 슬픔 앞에 당당히 맞서보지 않으시렵니까?

자, 판도라의 검은 상자가 열렸습니다.

먼저 질병이 튀어나왔고, 이제 기근(궁핍)이 닥쳐올지도 모르고, 더욱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 특히 예술가들의 곤궁한 삶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나요,

이 문장을?.....

“그 도둑들이 나의 오랜 보물들을 빼앗아가도 난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미’ 당신과 함께 (판도라 상자에 남아있던) ‘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페라 라 보엠 중 ‘로돌포’의 이 아리아의 ‘하이 체’에 온 몸과 온 신경들을 맡기면서 이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위대한 조물주에게 다시 한 번 무릎을 꿇어 간구해 봅시다.

잘 아는 이야기는 뒤집어 보는 매력 뮤지컬 '위키드'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jwon@sch.ac.kr

박을 타던 흥부가 금은보화에 환호하면, 멀찌감치 숨어있던 놀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경제 관념도 없는 놈이 애들만 잔뜩 낳고... 내가 연극 한번 꾸며봤다.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우야...” 적어도 제비의 보은보다는 실감나는 설정이다. 낯설지만 참신하다.

비단 놀부만이 아니다. 요즘 문화계에선 익숙한 고전을 뒤틀어보는 사례들이 많다. 영화 '방자전'에선 춘향의 연인이 이몽룡이 아닌 방자였다는 가정을 전개한다. 변태적인 성적 취향의 변화도가 웃음을 자아내는가 하면, 발칙한 향단의 도발도 신선하다. 신윤복이 여자였다거나 세종대왕이 욕지거리를 즐겨 내뱉었다는 설정도 인기를 누리긴 마찬가지다. 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껄쩍 뿔 일일지 모르지만, 문학과 예술의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발칙한 가설이자 재미난 실험이다.

현대 뮤지컬에서도 이런 발상의 전환이 흥미로운 작품이 있다.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린 이래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큰 각광을 받은 뮤지컬 위키드(Wicked)다. 세계 어느곳에서 개막한 해에는 단 한번도 흥행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는 가히 살아있는 전설같은 작품이다.

뮤지컬 '위키드'가 비틀어 재구성한 것은 바로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다. 태풍에 실려 '오즈'로 날아온 캔사스 소녀 - 도로시는 자신과 함께 날아온 집에 그만 동쪽 마녀가 깔려 죽은 사실을 알게 된다. 초록색 피부의 못된 서쪽 마녀는 표독스럽게 여동생인 동쪽 마녀의 복수를 다짐 하지만, 도로시는 다행스럽게도 착한 북쪽 마녀의 도움을 받게 되고 다시





THE BROADWAY MUSICAL

WICKED

THE UNTOLD STORY OF THE WITCHES OF OZ



Arts & Story

뮤지컬 '위키드'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나선다.

노란 벽돌을 따라 떠난 여행길, 도로시는 두뇌 없는 허수아비, 용기 없는 사자, 심장 없는 양철인간을 만난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사리 찾은 마법사의 성, 그러나 무엇이든 해결해 줄 것이라던 '오즈의 마법사'는 서쪽 마녀를 없애야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일행을 되돌려 보낸다. 우여곡절 끝에 서쪽 마녀를 물리친 도로시 일행은 다시 마법사를 찾아와 각자의 소원을 얻으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사실 도로시와 마찬가지로 기구를 타고 날아온 평범한 발명가에 불과했다. 실망하는 일행들에게 마법사는 그러나 나쁜 마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허수아비는 지혜를, 사자는 용맹스러움을, 양철인간은 뜨거운 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며 모두 원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다고 일깨워준다. 홀로 남겨진 도로시, 하지만 착한 북쪽 마녀는 도로시가

신고 다니던 죽은 서쪽 마녀의 마법 구두가 그녀를 고향으로 돌려 보내줄 것이라 가르쳐준다. 마법의 단어는 바로 "이 세상에 집만한 곳은 없다네(There is no place like home)"를 세 번 외치며 구두 뒷굽을 치는 것. 결국 도로시는 동화 같은 나라 - 오즈를 떠나 캔사스의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선을 보인 것은 프랭크 바움(L. Frank Baum)이 1900년 발표작 동화책 '오즈의 멋진 마법사(The Wonderful Wizard of Oz)'로부터였다.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게 된 것은 출판물 보다는 1939년에 발표됐던 뮤지컬 영화 덕분이다. 볼수록 귀엽다는 당시 최고의 뮤지컬 스타 '주디 갈란드'가 타이틀 롤을 맡아 영화 한 가득 매력이 뿜어내 화제가 됐었기 때문이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Somewhere over the rainbow)'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영화음악 중 하나다.





Photo of American Production by Joan Marcus

그러나 과연 도로시가 본 것이 오즈의 모든 것일까?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서쪽 마녀의 분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들을 속이고 사는 ‘오즈의 마법사’는 정치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즈의 진짜 ‘마법사’인 서쪽 초록마녀의 이상한 피부색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뮤지컬 ‘위키드’의 시작은 이런 엉뚱한 발상에서 비롯됐다. 제목으로 쓰인 ‘위키드’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괴하다’ 혹은 ‘괴상하다’는 뜻인데, 마녀라는 뜻인 ‘위치(witch)’와도 자주 어울려 등장한다. 제목에서 이미 숨겨진 오즈의 마녀들 이야기라는 해석도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와 마찬가지로 뮤지컬 ‘위키드’도 원래는 소설이다. 이 뮤지컬의 원작은 그레고리 맥과이어(Gregory Maguire)가 1995년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위키드: 괴상한 서쪽 마녀의 삶과 시간들(Wicked: The Life and Times of the Wicked witch of the West)’이다. 그리고 이 기상천외한 발상의 전환을 뮤지컬로 탈바꿈시킨 것은 바로 스테판 슈왈츠(Stephan Swartz)이다. 디즈니

만화영화 ‘포카혼타스’나 ‘노틀담의 꼽추’에서 알란 멘켄(Alan Menken)과 함께 작업했던 그는 뮤지컬 애호가 사이에서는 ‘가스펠’이나 ‘피핀’의 제작자로 유명하다. 뮤지컬 ‘위키드’에서 그는 작곡과 작사를 맡아 대중의 흥행 감각을 읽어내는 변함없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초연 무대에서 뮤지컬 ‘위키드’의 가장 큰 매력은 주연을 맡은 두 여배우의 명연기에서 비롯됐다. 착한 마녀 글린다(마녀가 되기 전에는 꺄린다라 불렸던) 역으로 등장하는 크리스틴 체노위스(Kristin Chenoweth)는 지난 1999년 ‘찰리 브라운,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이미 토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연기파 여배우다. 공주병 환자 같은 말투에 매순간 재기가 넘치는 대사 그리고 특히 높은 음역대도 마다않는 가창력은 가히 정상급 뮤지컬 배우로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 한편, 초록 마녀 엘파바로 나오는 아이디나 멘젤(Idina Menzel)은 국내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뮤지컬 ‘렌트’에서 늘씬한 미녀 모린 역으로 오리지널 캐스팅된 실력과 여배우다. ‘위키드’는 2004년 토니상 수상식에서

9개 부문 10대상의 후보작으로 선정되는데, 특히 '위키드'의 여배우들은 두 명 모두 동시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그중 아이디나 맨젤이 본상을 거머쥐는 진풍경을 연출해 냈다. 비록 이젠 오리지널 캐스트들의 불꽃 튀는 연기를 다시 볼 순 없지만,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 올려지는 여러 프로덕션의 여주인공들이 이 작품 최고의 화제가 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위키드'는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170억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로도 유명하다. 입체적인 무대와 미술적인 완성도는 대작 뮤지컬의 기본인 화려한 볼거리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을 만하다. 일부 평론가들은 안무가 평이하다며 불평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위키드'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기 좋다는 홍보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계 상업 극장가에서 기록적인 흥행을 달성하고 있다. 사실 극 자체로서뿐 아니라 극장 곳곳에 관객들을 배려한 여러 세련된 디자인들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아쉬움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브로드웨이의 거쉬윈 극장 입구에 써 있던 "조심 운전 혹은 비행하세요(Safe driving(or flying))!"라는 문구도 그중 하나다. 물론 마녀들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이야기를 빗대어 재치 있게 표현한 홍보문구인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환상의 마법 세계에서 머물게 하려는 제작진의 친절한 배려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뮤지컬 '위키드'의 인기는 단지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다. 대서양 건너 런던 웨스트엔드 극장가나 호주 버전의 공연도 연일 장사진을 이루며 큰 흥행을 기록했다. 비영어 문화권 중에는 일본 공연도 있다. 2007년 6월 막을 올린 극단 시키(四季)의 일본어 버전 공연은 공연 한 달 만에 반년치 예매 입장권이 일찌감치 동이 나는 흥행몰이에 성공하기도 했다. 당시 도쿄의 시오도메 시오사이트에 위치한 텐츠 시키 씨어터를 찾아가면 극장 주변이 온통 초록색의 '위키드' 관련 상점들로 가득한 풍경을 만날 수 있었는데, 글린다 역으로는 누마다 미유키, 엘파바 역으로는 하마다 메구미가 참여해 정상급 가창력과 연기력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지난 2011년 8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는 8년 동안 3400여회를 넘는 연속공연 기록을 세웠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연은 계속 순항중이다. 기록으로만 보자면



역대 브로드웨이 뮤지컬중 13번째 장기상연작이 됐다는 의미인데, 아직도 티켓 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앞으로의 기록 갱신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이다.

'위키드'는 특히 음악이 좋은 뮤지컬로도 정평이 자자하다. 노래 하나하나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극 안에서의 쓰임새가 너무 잘 어울려 극성을 지닌 뮤지컬 음악으로서의 존재감을 잘 담아낸다. 글린다가 룸메이트가 된 엘파바를 여성스럽게 치장해주며 부르는 노래 '인기(Popular)'나 엘파바와 피에로(나중에 허수아비가 되는 인물로 글린다, 엘파바와 함께 사랑의 삼각관계를 이룬다)의 노래 '내게 당신이 있는 한(As long as you're mine)'도 뒷맛이 오래 남는 수작이다. 기숙사에서 만난 괴상한 룸메이트에 대해 각자 고향집에 편지를 쓰는 장면에 나오는 '이 기분은 뭐지?(What is this feeling?)'도 공연을 보면 한참이나 수다를 떨게 만들어 준다. 재잘대듯 끊임없이 얘기하는 글린다가 한참을 불평하는데 비해, '금발이야'라며 한마디로 룸메이트를 정의 내리는 엘파바의 노래말에는 폭소가 터진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넘버는 역시 1막 마지막에 등장하는 '중력을 넘어서(Defying Gravity)'이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미국 드라마 '글리(Glee)'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하데 초록마녀인 엘파바가 스스로의 사명감을 깨닫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극적인 장치로 활용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몇 번만 반복해 듣다보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수려한 멜로디도 인상적이지만, 글린다와 엘파바가 나누는 우정의 대화는 언제 들어도 절로 눈물나는 감동적인 명곡이다. 꼭 도전해보길 추천한다.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4

그녀의 허밍, 말해주세요

남인숙
미학박사 / 미술평론



말해주세요, 81.8x227.3, Acrylic+Thread, 2011

1. 작가와 현대성

그림 앞에 서면 노래가 들린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노래가 들리면 따라부르게 되는 그림, 우리에게 '말해주세요(Tell Me)'라고 조른다거나 이런 저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림. 이명미의 작품은 매일 아침 수신되는 안부 인사처럼 우리에게 현대미술의 즐겁고도 소소한 재미를 전달해준다. 이명미의 작업은 1970년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시대를 주도하던 주요 조형 흐름을 따르지

얇고 분명한 개성으로 자신만의 화업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화된 형상, 풀라주 같은 색의 배치, 대중가요의 가사들, 작가의 삶 속에 떠도는 이름들을 화면에 끌어 들인다. 노랑 바탕의 새로운 조형 공간에 장난감 비행기가 날고, 짓는 것이 아니라 열창하는, '사랑한다고~~' 열창하는 개 형상 앞에서 관객은 흘러간 추억의 대중가요를 흥얼거리게 된다. 개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열창하는 개 옆을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일까, 시의 한 구절인지 노래의 한 구절인지 그가 떠올리는 '보고 싶어서~ 눈물을~ 너~' 등 흘러가는 문자가 그의 머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 사람은 발도 글자로 된 발이다.(<말해주세요>) 생각으로, 가슴으로, 행동으로 일어나는 작가의 제스처와 기억의 흐름을 작품의 내용으로 끌어들이면서, 작품은 한창 말하는 도중에 딱 - 멈춘 것과도 같다. 작품은 휴지(休止)와 생략의 전략으로 동세와 긴장, 멈춘 이야기 너머의 삶을 화면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화면 고유의 자율적인 환상의 공간을 구축하면서도 화면 바깥의 반응을 끌어들이는 방식의 작품은 회화의 공간을 관객이 작품을 마주하는 시점의 공간까지 확장시키는 매우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기, Acrylic, 227.3x181.8, 1997

대학 졸업 후, 제1회 앙데팡당전에 참가하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현장에서 살아 왔던 이명미는 '미술의 현대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중·장년의 시기를 대구에서 보낸 작가는 1970년대 당시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자발적인 발심으로 시작된 '현대 미술제'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집단 활동인 <35/128>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35/128'은 대구의 위도와 경도를 집단의 이름으로 사용한 미술인 그룹이다. 1975년 창립.) 수화랑의 큐레이터였던 황현욱, 1970년대 실험정신을 1990년대에 재조명했던 시공화랑

큐레이터 이태와 함께 1970-1980년대 현대 미술의 전개에 참여한 이명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현대미술의 현장에 있었다. 작가는 “삶에서 이보다 더 나를 들뜨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아무리 물어도 지치지 않고 다시 답하고 싶은 이런 것이 또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에서 작가에게 미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지, 그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화가로서의 고집과 진지함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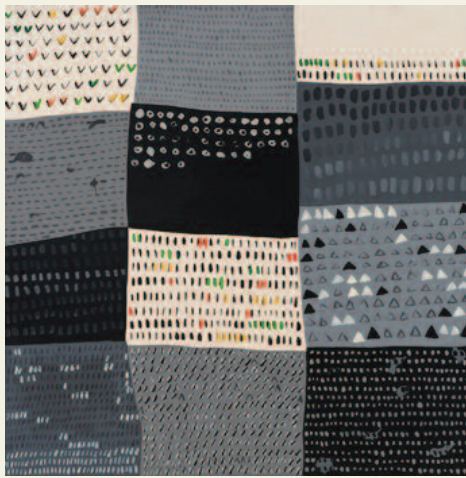
단순화시킨 형상과 문자를 다루는 솜씨를 보면 상당히 과감하고 통쾌한데, 이 복합적인 운영을 따라가며 작가 상상력의 범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별을 그리고, 그 ‘별 같음’을 보충하기 위해 ‘별’을 문자로 호명한다. 실상(實像)이라할 까, 그 구체성이라 할까 별의 형상만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별’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 문자로 별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다. 관객은 이것을 발음해서 따라 불러봄으로써 각자가 경험한 ‘별에 대한’ 개별적인 기억까지도 그 별에 쏟아붓게 된다. 이렇게 작가의 상상력은 관객의 상상력과 이어져서 화면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공간은 물리적인 화면의 범위를 훌쩍 넘어 확장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 화면의 고유함과 현대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별’이라고 따라 부르는 것은 머리 속에 떠도는 관념을 현실에 구체화시키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관념의 구체성을 되살려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구체성은 바로 현재의 시간과 공간, 지각의 내용을 화면의 내용으로 끌어들이는 것인 바, 여기에 이 작가의 현대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림의 표면은 확장된 환상의 공간을 열어젖히는 감각의 문(門)으로써 더 없는 탄력의 문이 되는 것이다. 단번에 다 드러낼 수 없는 직관의 내용을 ‘형상, 문자, 기억’을 동원해 회화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화면’이라는 평면성에 화면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경험적 구체성을 함께 기입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19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명미 작품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이다.

2. 작품과 조형성

작품의 현대성과 실험의 내용은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사물과 만나는 그녀의 직관력은 사물을 조형의 차원으로, 조형의 차원을 사물로 다시 이어가는 전형적인 호모 루덴스의 제스처인 것이다. 그녀의 작품 앞에서는 부지불식간에 흥얼거리게 되거나, 맥락없이 등장하는 문자를 읽게 되고, 문자를 읽으면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의 회상을 작품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작품을 마주하며 끊임없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문자가 이미지로, 읽기가 그리기로, 대중성이 조형성’으로 상호 전환되는 장에서 놀게 하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일이 조형성의 구축이라는 한정된 영역의 전문적인

일이지는 하지만, 이명미의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노래도 부르게 되고 추억에 잠기기도 하면서 단순하게나마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미 작품이 발휘하는 조형의 힘은 관객의 삶의 까지도 포괄하게 되므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 모두의 유희이자 대중적인 유희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관점에서 미술사를 잠시 돌아보면 르네 마그리트가 부정의 방식으로 이미지의 실재성을 증명하려 한 바 있다(예를 들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등). 이에 반해 이명미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긍정의 방식으로, 이미지-문자 간의 중지와 교행, 상호 간섭을 이끌면서 우리 모두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끊임없는 이미지 그물을 만든다. (예를 들어, <컵에서 사람까지>(1990), <말 탄 여자>(2002)).



놀이, 130x130—Oil On Canvas, 1976



놀이, Oil On Canvas, 162x130, 1978

1970년대 말부터 이명미 작품에는 ‘문자’가 등장한다. 그 이전 작품에는 선과 점, 색과 면이 주조를 이루는데, ‘공간의 현대성’을 찾아나서는 진지함과 무게가 실려 있다.(예를 들어, 1976-77년 <놀이> 시리즈) 문자의 등장과 기하형상으로 간소화시킨 형상의 등장, 즉 말과 개, 꽃과 화분, 컵, 여자와 남자 등의 운곽 등의 ‘아이디언’ 제스처가 등장하면서 회화성을 찾는 진지함의 무게는 점차 사라진다. 작품의 무게 중심이 화면과 조형언어들의 운동감으로 이동되고 무게 중심은 확산되면서 존재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 풀어내기 시작한다. 이명미에게 중요한 것은 존재나 본질의 무게감이 아니라, 존재가 발휘하는 효력, 그 효력이 미치는 규모 그리고 그것의 감각적인 구체성인 것이다.

작품에서 문자는 한때 구체적인 시간 속에 존재했던 사건을 지시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실마리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조성해서 환영의 공간을 만든다. 문득 문득 던져진 문자는 더듬더듬 회화의 진실을 말하는 듯하면서도 그 문자를 읽는 자의 진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진실’, ‘누이의 진실’, ‘그녀와 그의 진실’, ‘개나 말, 컵이나 의자의 진실’ 등의 관계와 공명한다. <말 탄 여자>의 경우, 말(word)이 있는 말(horse)을 탄 여자가 있는 말들의 풍경이다. 화면 위에서는 말과 말이 중첩되고 그 말이 여러 말로 분화되고 흩어지면서 이미지들끼리 관계가 증폭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면서 어떤 진실이나 기억의 이미지들을 화면 위에 떠다니게 한다.

이명미 작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작품의 제목이다. ‘놀이’라는 제목 이외 무심히 던진 듯한 제목들은 중의적으로 작용하며 의미를



말탄여자, 181,8x227,3, Cloth+button+Acrylic, 2001

키우기도 하고 무화시키기도 한다. ‘그곳으로 갈게(‘I’ll be there)’, ‘토론(Discussion)’, ‘그리기 (Drawing)’, ‘마셔버리자(Let’s drink)’, ‘멈추다(Stop)’, ‘저녁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Talking about dinner)’,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Don’t leave in the fall)’, ‘나르는 것(Carrying)’, ‘풍경 (Landscape)’ 등, 명사의 지시대상이 여러 개이거나 동사의 주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이는 그림 안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거나 중의적인 것들을 누군가인 ‘내’가 불러야 비로소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혹은 이와 반대로 예상했던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수행어’를 수행 불가능한 사태와 마주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문자와 제목에 활용되곤 한다. 조형물에서도 이런 놀이의 방식은 유지되고 있다. <앉으시오 (Please Sit down)>는 높이가 4m가 넘는 의자형상의 조형물이다.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앉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시어와 달리 ‘지시에 응할 수 없음’ 이 둘 사이의 틈새는 현실 속에서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형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에서 작가는 이미지의 확장과 문자라는 수축 사이를 오가며, ‘그리기’라는 본향에서 흘러나오는 그녀만의 조형성에 대한 허밍을 부르며 허밍의 기보(棋譜)를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 조형의 현대성을 구축하고 있다.

06 2020

공연가이드

6.03(수)	19:00	[대관]	제23회 울산무용제1	소공연장/울산무용협회	[무관객]
6.05(금)	19:00	[대관]	제24회 울산무용제2	소공연장/울산무용협회	[무관객]
6.10(수)	19:30	[기획]	뒤란 6.10	소공연장/문화예술회관/ubc울산방송	[띄어앉기]
6.12(금)	20:00	[교향]	시립교향악단 클래식할벤	대공연장/시립예술단	[띄어앉기]
6.16(화)	19:30	[대관]	남구 구립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울산남구 구립교향악단	[띄어앉기]
6.16(화)	17:30	[대관]	지성호 바이올린 독주회	소공연장/지성호(개인)	[띄어앉기]
6.18(목)	17:00	[대관]	김진원무용단 전문예술단체지정공연 “춤으路”	소공연장/김진원무용단	[무관객 녹화]
6.19(금)	19:30	[대관]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대공연장/울산싱어즈오페라단	[띄어앉기]
6.20(토)	16:00				
6.19(금)	14:00	[기획]	영화 <감쪽같은 그녀>	소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서울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띄어앉기]
6.20(토)	14:00	[기획]	영화 <미당을 나온 암탉>	소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서울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띄어앉기]
6.21(일)	14:00	[기획]	영화 <일 포스티노>	소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서울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띄어앉기]
6.23(화)	19:30	[합창]	시립합창단 제113회 정기연주회 『위로와 희망의 메세지』 객원지휘 : 윤의중	소공연장/시립예술단	[띄어앉기]
6.24(수)	19:30	[기획]	뒤란 6.24	소공연장/문화예술회관/ubc울산방송	[띄어앉기]
6.26(금)	19:30	[기획]	크로스오버뮤직패스타	아외공연장/문화예술회관	[띄어앉기]
	15:00				
6.27(토)	19:30				
6.27(토)	11:00	[기획]	어나도 아트	쉼터 앞/문화예술회관	[띄어앉기]
6.30(화)	20:00	[교향]	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 시네마음악회	소공연장/시립예술단	[띄어앉기]

※ 공연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6 2020

전시가이드

2.21.~12.9 ^(290일간)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장소 상설전시장(갤러리 씬)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참여 작가 기증작품 총 44점(미술, 사진 등) 전시
5.22.~6.13 ^(20일간) 한국화 100년 특별전	장소 제1전시장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근·현대 한국화 작품 60점 및 아카이브 100점 전시
6.3.~6.8 ^(6일간) 제6회 코리아보타니컬 미술협회전	장소 제2·3전시장	주최 보타니컬문화예술진흥원	장미를 주제로 식물세밀화가인 보타니컬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미술작품 100여점 전시
6.3.~6.8 ^(6일간) 제30회 최명영 개인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개인(최명영)	울산시 서생 배꽃을 주제로 하여 200호등 대작 및 작품 20여점 전시
6.10.~6.15 ^(6일간) 제4회 렌토사진포럼 회원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렌토사진포럼	인간의 삶의 최종 목표인 '행복'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 120점 전시
6.17.~6.22. ^(6일간)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 부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미술협회	한국화, 서양화, 조각, 수채화, 서각, 서예, 문인화, 공예(디자인) 8개분야의 입상작품을 I · II 부로 나누어 250여점 전시
6.23.~6.28 ^(6일간)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I 부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미술협회	한국화, 서양화, 조각, 수채화, 서각, 서예, 문인화, 공예(디자인) 8개분야의 입상작품을 I · II 부로 나누어 250여점 전시
6.30.~7.5 ^(6일간) 제17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서화예술진흥회	서예, 문인화, 한글, 한문, 문인화, 서각 등 각 분야의 입상작 350여점 전시

※ 전시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

6

2020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실터앞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1

2

7

8

9

14

15

16

- 남구 구립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
19:30
- 지성호 바이올린 독주회
17:30

21

- 영화 < 일 포스티노 >
14:00

22

23

- 시립합창단 제113회 정기연주회
19:30

28

29

30

- 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 시네마음악회
20:00

전시일정

6

2020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갤러리 씬
- 야외전시장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1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2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7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6회 코리아보타니컬 미술협회전
- 제30회 최명영 개인전

8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6회 코리아보타니컬 미술협회전
- 제30회 최명영 개인전

9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14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4회 렌토사진포럼 회원전

15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4회 렌토사진포럼 회원전

16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21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 부

22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 부

23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I 부

28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I 부

29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30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17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WED	THU	FRI	SAT
3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6회 코리아보타니컬 미술협회전 ● 제30회 최명영 개인전	4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6회 코리아보타니컬 미술협회전 ● 제30회 최명영 개인전	5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6회 코리아보타니컬 미술협회전 ● 제30회 최명영 개인전	6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6회 코리아보타니컬 미술협회전 ● 제30회 최명영 개인전
10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4회 렌토사진포럼 회원전	11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4회 렌토사진포럼 회원전	12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4회 렌토사진포럼 회원전	13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한국화 100년 특별전 ● 제4회 렌토사진포럼 회원전
17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 부	18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 부	19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 부	20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 부
24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I 부	25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I 부	26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I 부	27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24회 울산미술대전 II 부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중구문화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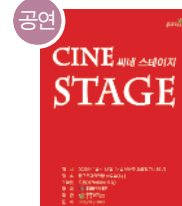
조윤범의 렉처콘서트 작곡가 시리즈_베토벤

일 시 2020. 6. 16(화) 19:30
입장료 전석 1만원(초등학생 이상관람가)



아츠홀릭'관, 이지연 컨템포러리 재즈 앙상블
<지브리 애니메이션 in JAZZ>

일 시 2020. 6. 18(목) 19:30
입장료 전석 1만원(초등학생 이상관람가)



[문화가있는주간기념]영상으로만나는명작무대
「씨네스테이지」해적

일 시 2020. 6. 23(화) 19:30
입장료 전석 무료(사전에약필수)

울주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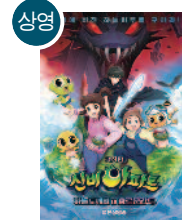
6월 하우스콘서트 <비올리스트 문서현>

일 시 2020. 6. 24(수) 20:00
입장료 전석 5천원



울주 피크닉 콘서트

일 시 2020. 6. 27(토) 19:00
입장료 1인석 5천원, 2인 테이블 1만원
4인 테이블 1만5천원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일 시 2020. 6. 13(토) 11:00, 14:00
입장료 전석 2천원



무비나잇_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일 시 2020. 6. 13(토) 19:00
입장료 전석 1천원

현대예술관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2020. 6. 3(수) 오후 8시, 대공연장
입장료 R석 6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M.Chat 고양이展

일 시 2020. 5. 1(금) ~ 7. 19(일) 미술관 (*월 휴관)
입장료 일반 8,000원, 중·고등학생 이하 6,000원

※ 공연 및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가입 안내

가입방법

회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회원종류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가입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 275-9623~8, <http://ucac.ulsan.go.kr>

구 분	가입기준	연 회 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1인)	25,000원(1인)	40,000원(1인)	75,000원(1인)	가입인원

유료회원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시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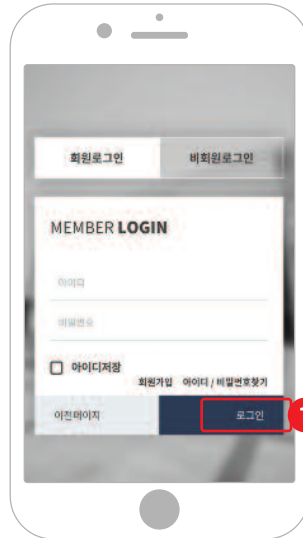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협약점 이용방법

스마트폰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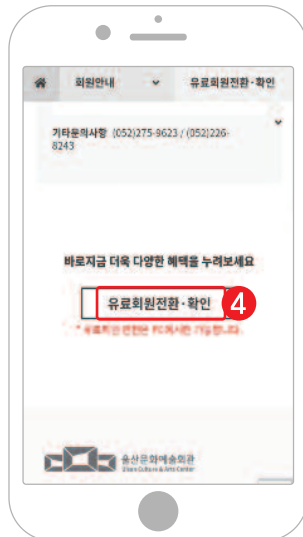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유료회원 여부 확인

간단히 알아보기

1.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2.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3.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4.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5. 유료회원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 052)226-8242 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 캡처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 미 사용자

회관 방문 후 인식증 발급 및 인식증 사용(발급비용 없음)

Information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웰컴센터와 상상놀이터를 새 단장 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웰컴센터

- ▶ 위치 : 회관 뒤편 출입구 앞(주차장 쪽)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 안내사항 : 공연티켓 문의, 공연·전시 등 종합안내



상상놀이터

- ▶ 위치 : 회관 당직실 앞
- ▶ 수용인원 : 8명(3세부터 취학전 어린이)
- ▶ 운영시간 : 공연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직후 (운영시간 중 하우스가이드 1명 상주 근무)



		새	로	운		일	상		
생	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프로젝트



"힘내라-울산!"

2020 울산

크로스오버

뮤직페스타

Crossover Music Festa

2020. 6. 26.(금) ~ 27.(토)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6. 26.(금) 19:30~21:30 클래식으로 듣는 OST

6. 27.(토) 15:00~17:00 야단법석(野壇法席)

19:30~21:30 감성과 치유(Feeling & Healing)

코로나19 방역지침 마스크착용, 객석 띄워앉기, 타인과 1미터이상 거리두기